

열린 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세요. 하이텔을 이용하실 경우, DGU 10번게시판이나 ID: dgpress@idyl을 통해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

공대농구장 현황판 설치로 체육관 시설도 개방해야

체육대회가 한창이다. 10월 들어 체육행사가 늘어남에 따라 아직 제 모습을 찾지 못한 만해광장까지 열 날이 없다.
10월 '백상제전'이 시작되고 10월은 각학과, 단대 차원의 문화·예술 행사들이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두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 첫째는 공대농구장의 운영에 관한 것인데, 현재 농구장 내에 '현황 게시판'이 없어 언제 어느 경기가 치러지는지 알 수가 없다.
친선경기로 농구를 즐기는 학생들도 그렇지만, 과나 단대 행사도 겹치기 십상이다. 공대농구장은 지난 봄 '백상기 농구대회'에서 아마추어 농구부가 시설을 보수해 깨끗한 코트도 다듬은 적이 있고 현재 공대농구장을 사용하는 모든 경기일정을 조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황게시판이 없으므로 해서 그날의 농구경기일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경기를 할 학생들이 많다. 현황판의 설치에 보다 효율적인 공대농구장관리를 위해 필요하며, 학교당국에서 조속히 설치해 주었으면 싶다.
두번째로 아쉬운 것은, 체육관시설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운동장의 경우도 야구·축구 연습경기로 이용시간이 늘 제한되는 데, 언제부터인지 체육관의 문이

닫혀 버렸다.
틀리는 말에 의하면, 이전 개방되었을 때 학생들의 체육관사용예정이 엉망이어서 이를 관리하는 체교과 학생들만 애를 먹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반학생들에게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설립 그러한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으로써 광공시설을 이용하는 예절을 배울 수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 체육관을 잘못 이용했을 경우 개인이나 해당학과에 시한부 사용금지 통보를 할 수도 있다.
체육관 시설은 동국스포츠를 빛내는 체육엘리트만의 공간은 아니다. 그곳은 모든 학생의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한 생활체육의 장소이다.
'생활체육'도 이전 과거의 유행어처럼 보편화되어 있다. 캠퍼스내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학생도 늘었다. 그러나 공대농구장은 언제나 무리작하게 북적거리고, 정작 학생들이 자주 이용해야 할 체육관도 교양과목 이외의 행사에 개방되지 않고 있다.
스포츠에도 예절과 문화가 있다. 10월에는 운동을 하며 그런 것도 꼼꼼히 생각해 볼 일이다.

이병민
(문과대 국문과)

학내 비둘기의 수난

무심한 행동 상처입힐수도

점심식사 후 잔디밭에 앉아있는데 다리다친 비둘기가 중앙도서관 앞에서 쫓겨다니다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었다. 학생들도 많으나 누가 어떻게 하겠지 하고 지켜보고 있었으나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던 중 한 군인이 역을 휘둘러 놓고 비둘기가 일사당할 뻔했다. 도서관 앞에서 집회를 준비중인 학생들이 차를 치우줄 것을 요구하자 또 한번 심하게 차를 치고 비둘기 꼬리를 쓰치며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는데 참 아찔했다.
한동안 거들떠보는 학생 하나 없다가 한 학생이 잔디위로 옮겼는데 비둘기는 다리하리를 쭉뚝거리는데 쓰도가 아니라 아예 못 쓰고 있었다. 그 옆의 학생이 삼과보다 겹으

로는 상처가 보이지 않았는지 그냥 두고 가려라. 전에 다리부러진 새를 고쳐본 적이 있어서 쓰도로 부러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오는 도중에 동물병원에 들렀는데 개나 고양이만 고친다고 했다. 집에서 깃털을 들춰 살펴보니 납작다리 뒷부분에 3에서 4cm정도의 상처가 있었다. 산란중에 맞은 것 같은데 탄성분이 남아 축시나 축지 않을까 걱정된다. 지금 쌀, 진뽕제를 탄 물과 함께 박스안에서 죽고 있는데 참 안타깝다.
우리 주위에는 비둘기들이 많다. 흔한 것은 가치가 떨어진다고 비둘기의 존재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경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강진주
(ID: hp0929)

학부제, 원칙론과 대세론 우선 유감 대학원 없는 온방골... 기본 취지 무색

2학기 중반이 넘어가고 있는 온방골이 심상치 않다.
학교측은 세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제도의 마련과 무한경쟁시대에 필수불가결한 학부제를 실시하는데 동국인 전체가 한뜻으로 뭉쳐야 한다는 논리로 학부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당국의 이러한 학부제 추진논리는 학부제로의 올바른 진행을 위한 교육제반여건의 육성은 무시한채 원칙론과 대세론만이 우선이고 전부일 뿐이다.
예컨대 여전히 공간부족과 교수 확보문제로 허덕이고 있는 온방골이 학부제 실시이후 늘어날 교양강좌 및 전공과목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기본적인 의문에도 현재로서는 아니더라 답이 명

확하게 나올 수 밖에 없다.
또한 연구중심의 대학, 대학원중심의 대학을 표방하는 학부제 체제 아래 제대로 된 대학원 하나 없는 온방골은 '학'과 '및' 교육과정의 통합 운영으로 다양한 전공선택의 기회가 늘어났다'는 기본취지에도 반하게 되며 취지 잘 되는 전공에만 학생이 몰리게 될 것이다. 결국 온방골은 기술교육학원으로 완전히 전락하고 말 것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학부제가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원칙한 학교당국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입장정리, 교육여건의 육성·발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온방골은 불과 1년 남짓 준비해온 서울캠퍼스 중심의 준비과정

에서도 소외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기를 느껴야 한다. 유명대학, 서울캠퍼스 대세라는 이유만으로 쫓겨 버린다면 결국 그 후유증은 온방골 학우들과 학부제의 최대수혜자라고 주장해온 신입생들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한 학부제인가, 무심코 던진 학부제에 온방골이 맞아 쓰러지게 될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과가 없어진다'며 7系的 총격에서 벗어나 올바른 학부제정착과 무원칙한 추진을 반대하는 온방골 교육주체들의 의지가 모아져야 할 시점이다.
김혜선
(상경대 정보산업학과)

남녀, 같은 인격체로 인식

여성해방 모습 드러낼 듯

아침, 아직 태양이 기지개를 켜기 전 석양에서 학교로 오는 길 혹은 성간동에서 학교로 오는 길을 걷다가 자신의 옆에 펼쳐져 있는 가을 풍경에 한번쯤 바라본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분명 아직 어린 새싹이 돋아난 것 같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노랗게 익어 결실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벼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옥 벼들이라고 하는 낫 그릇들이 만들어 내는 아름다운 물결을 바라본적이 있다면, 자신의 컷가에 감포 바닷가의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고 해보았을 듯하다. 그리고 그 파도 속에서 하얀 모시로 얼굴을 감고자 자신이 키운 벼의 낱알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농부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던 기억도 있으리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 아름다운 모습에 조그마한 구멍을 뚫고 들어다 보자. 두눈에 광경을 볼 때 대고 하얀 모자 속에 숨어있는 것 같고 아저씨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의 굵은 어깨에 떨어진 짐을 바라보도록 하자. 그리고 생각하는 거다. 어떤집의 장남일지도 몰라. 이런 시집부부의 기대를 함부로 받았는지. 그리고 밑으로는 적어도 다섯명의 동생이 있었을 거야. 어쩌면 공부를 하고 싶다는 욕망을 가난한 집안과 밀린 동생들 때문에 일찌감치 포기하고 농사일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 후에는 자식과 아내를 먹여 살리기 위해 죽도록 일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장남의 입으로 노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겠지?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농부의 어머니는 지독한 시집살이를 겪었을 거야. 농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역시 똑같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을까? 한마디로 완벽한 남자가 되기를 강요당하며 살아왔을 거야. 그렇다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는 남자가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 너무 많다. 그리고 전통적 사회질서 속에서 여성의 희생에 비해 남성의 희생은 그다지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남자이므로 그래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은 회의조차 하지 못하도록 그 뿌리가 깊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고정관념처럼 생각하고 있는 여러 관념들을 부셔버려라. 남자의 일, 여자의 일을 무 자르듯 자르기로 하라.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 할 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나아가 서로가 같은 인격체로 만드는 것만으로도 진정한 남성애를 드러낼 것이다.
이성훈
(인문과대학 철학과)

동/문/칼/럼

후배에게 보내는 편지한통

"동대에 와서 10시간 우주여행 그렇게 4년간 계속해서..."

누가 '인생은 나그네길'이라고 말했는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동대에서의 만남은 영원한 우주여행의 시간중에 '동대'라는 공간에서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다.
지구도 분명히 몇 초씩씩이 바뀌는 별종의 하나로 공중에 떠있다는 사실을 이해는 하지만 순간마다 실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여러후배들에게 "나는 지금 우주여행중이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면서 생활을 사는 지혜라고 권하고 싶다.
흔히 '여행을 떠난다'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인다. 동심으로 돌아간다고나 할까 순수해지고 정직해진다거나 할까.
여러분 여행은 즐거움것으로 인생을 우주여행중의 순간으로 생각하면 좀더 뜻있고 좀더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지구의 자전속도가 시속 1천7백km라니 만약 여러분이 어느 날 한시간동안 애인하고 사랑을 속삭였다면 한시간후의 여러분의

위치는 같은 공간이 아니라 1천7백km 다른 우주의 위치에 있게 되는 셈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는 아침에 동대에 와서 10시간 우주여행을 하고 그렇게 4년간 계속해서 우주여행을 하다가 졸업을 하고 약간 다른 방향으로 제도수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동맹은 바꿀 수 없다는 말처럼 우리 동대에서의 만남은 시공을 초월해 영원한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만남이 서로간의 위대한 만남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 처음선택할때는 더 좋은 선택을 하기위해서 노력해야겠으나 이왕 선택을 했으면 나때문에 더 좋은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 동문들때문에 동국역사가 더욱 빛나고 있다'라고 기록되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길 당부한다.
나는 그동안 지구를 많이 돌면서 세계적인석학 아들도 토인비



교수, 일어당장사 그리고 각나라왕, 대통령, 수상들을 많이 만나보았다.
각분야에서 대단히 성공한분들의 공통점은 첫째로 정직하다 둘째로 효심이 대단하다 셋째로 조국에 강하다 넷째로 인간을 진실로 사랑한다 다섯째로 열심히 노력하노라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위대한 만남'을 창조하게 바란다.
임덕규
(다들로서 발행인·법 60주)

목errick

축하합니다

■산공 91, 승근아! 너의 24회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제 그만 철쭉들이고 생일선물은 사전으로 대신하라. 잘 살아라. -Soo
■10.10. 옥재! 생일 축하해... 배지처럼 잘먹고, 골처럼 잘자고, 소처럼 열심히! -Y-S-K
■공과대 쫄물대 한소리 5기 중범 6기 소영·미자 생일축하 -영아
■수학교육과의 귀영들이 '94해 원이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세요. 민20세 생일입니다. -백아 Y-R
■등직하지만 사랑스러운 공룡성아의 생일(10월14일)입니다. 국교과 여러분 많이 축하해주세요. -AD-RUSH 회장

수고하셨습니다

■독문과 연극팀 수고하셨습니다. -AD-RUSH 회장
■사우인 여러분 법정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해요. -95 이쁜이

동/약/광/장

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해요. -95 이쁜이
■독문과 제6회 정기공연 '남자는 남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김정, 형철과 95들, 지영·정민선배!! 스태프 여러분 사랑해요. -독문 92
■알립니다
■일문과의 대행사 추상제가 곧 열립니다. 특히 병민이 형이 연출을 맡은 원어연극은 정말 불만만한 작품이나 일본어에 관심있는 분은 꼭 보러 오세요. -열심히하는 결성생
■단·풍·연 제3회 정기공연 '해방전쟁' 지화자~ -92 어년
■경상도 싸나이 재혼이가 19일 날 군대간대요! 비록 끌려가는 군대지만 잘 갔다 오기를... -우역과 95일동
■열심히 합시다
■후배들이! 힘을 좀 내자. 내일도 해는 뜨겁잖아? -자과연 선배
■탈북장생, 탈원 모두 공연연습 열심히 합시다. -95 이쁜이
■이제 곁에 있지않은 우리의 당

후배

■후배 "윤진영" 끝까지 힘내라. -90 선배가
■그리고...
■야~ XX. 나 생일이었는데... 아무도 몰라주다니... 흑흑흑, 나 혼자 자축할란다. -교육, 잠현일
■현여울 아그들이 모교지를 다녀왔어요. 뜻까지 미안하고 돈독한 선배들의 정들을 마음마니 다지고 왔으면 좋겠네요.
■우리 모두 한글날을 맞이하여 한글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정기공화우
■친구 왔다감. 잘 구경하고 감. 도서관에 갔다 평침.
■국어술 연구회 가을정기공연 "해바라기의 죽음"이 무사히 끝났음을 축하드립니다. -국회의 심은하 성림
■즐거운 M.T 무사히 마쳤습니다. 모두모두 하나되는 젊·새인이

동/약/광/장

■무원칙한 계열화 결사반대! -지구회계(야) 머릿돌
■목errick
■메모리 8M(32핀) 팝니다. 드라이브 A(5.25"), B(3.5") 증정 -015-292-6521
■칼라 모니터 삼성 syncmaster (?)14" 팝니다. -015-292-6521
〈구내식당 식단표〉
다량관 식당
9(월) 마라두부밥(900) 푸른계(1000)
10(화) 쌀밥(900) 갈비탕(1500)
11(수) 배장국(700) 비빔밥(900)
12(목) 자갈치떡(1000) 돈가스(1200)
13(금) 마라두부(700) 육개장(1200)
동국관 식당
9(월) 갈비찜(900) 비프스(1500)
10(화) 양파우동(1000) 후라이드(900)
11(수) 배추된장(700) 불고기 비빔밥(1000)
12(목) 안계탕(1500) 마라두부(900)
13(금) 돈육계(1000) 콩나물(700)
동국관 교직원 식당
9(월) 김치전(2200) 닭조림(2500)
10(화) 조기전(2500) 오징어볶음(2200)
11(수) 토란국(2200) 돈육보쌈(3000)
12(목) 도토리묵(4000) 양송이(2200)
13(금) 한정식(2500)

온방골

축하합니다

■10월16일 행정학과 이봉수의 생일 축하해 주세요. -이쁜 후배가
■종영아, 지만야 성민이 형, 정속아 졸업 축하하며 사업 꼭 성공해라. -백기이비
■명재오빠, 퇴원 축하해요. 건강하세요. -당신의戀人
■우리 꼬마가 내일(10월 10일) 공연을 하는데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공연을 할때 많이 실수하길 은근히 바랄게요. -나
■95학번 군총사관 후보생 합격을 축하합니다. -경주에서 선배가
■용일아! 생일 무지 축하해. I

LOVE YOU.

-D-J
■불·동의 합선 여인들 일일차집 무사히 끝내시길 축하해요. -현주
■상대형 생일 축하해요. -예과 1학년 CMR
■수고하셨습니다
■틴틴 여러분 M.T서 시원한 바닷물 먹느라 수고했습니다. -상진
■95 불대인, 한마당 정말 좋았습니다. 강좌도 재미있었다구요. 체육대회도요. 열심히 준비해 주신 불대 집행부들께 정말 감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동학우 드림
■중영아, 지만야 성민이 형, 정속아 졸업 축하하며 사업 꼭 성공해라. -백기이비
■명재오빠, 퇴원 축하해요. 건강하세요. -당신의戀人
■우리 꼬마가 내일(10월 10일) 공연을 하는데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공연을 할때 많이 실수하길 은근히 바랄게요. -나
■95학번 군총사관 후보생 합격을 축하합니다. -경주에서 선배가
■용일아! 생일 무지 축하해. I

열심히 합시다

■동국인 여러분 전사회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영원한 동국인 K·J·H
■불취인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불취 15기?
■그리고...
■월로야! 효민아! 군에서 힘들겠지만, 열심히 살아야 하느니라. 건강해. -현주가
■TO. 미숙이란 아이. 추운 겨울에 불쌍 표 10장씩이나 판다고 고생이 많구나. 몸조심 많이하고 난이만 간다. -From, 승영이란 아이
■K·Soa! 군생활 잘하고 몸 건강히 지내라. -H·F·Y
■훈미야 매주마다 열리는 시합 잘해라. Fighting -친구들
■경제 94의 자질이 김진승형이 휴가나왔다가 돌아갔습니다. 우리 모두 진승이형에게 편지를... -경제 94

◆ 남북관계의 올바른 방향

‘통일기반조성’에 걸맞는 정책 입안해야

6·27지자체 선거를 계기로 그 동안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하다가 인공기 및 사진촬영사건을 계기로 다시 경색국면으로 회귀하였다. 최근의 상황은 마치 핵위협 때와 같은 적대관계가 재연되면서 급속히 악화일로로 접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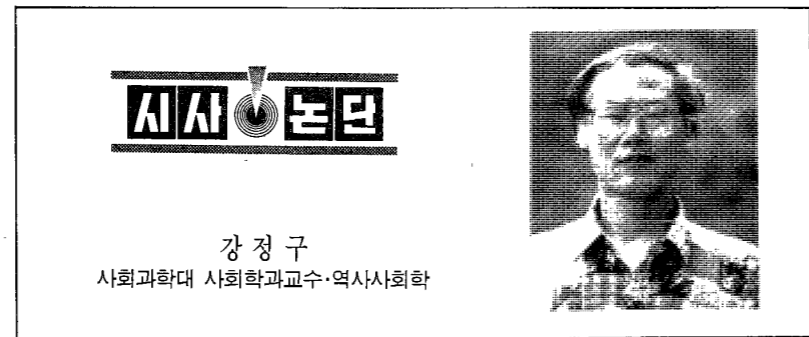
유엔에서 남북간에 인권공방이란 치졸하고 낯뜨거운 장면 연출, 일본에 북일수교를 자제해달라는 해방남을, 탈냉전과 통일의 시대에 두 지리수의 국방예산 증가, 향후 2-3년이 안보고비라는 위협적인 대통령의 업포, 또다시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한 95-6년도 도발적인 국방백서, 갑자기 1만명의 북한군 증가와 위협적인 미사일 개발 등 민감하지 않은 군지휘관들의 행방기, 인도적이고 동포애라고 떠들던 쌀지원의 무산, ‘쌀주고 뽕 땀 뺀다’는 부책임급 선전적인 제도권 언론의 허스터리즘, 북한의 지속적인 당국자 회담 거절 등 탈냉전과 통일 시대에 반경화·반통일·반민족적인 현상들이 난무하고 있다.

외국에서 사서라도 북한에 쌀을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굳은 의지는 불과 몇 개월만에 철회되었다. 해방과 분단 50년을 맞은 올해 8·15에는 민족사적으로 획기적인 남북정착이 발표될 것이라고 광고용 풍선을 외국정부에서 쓰아 대다가는 그만 공멸불로 마무리 지었다. 관계개선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핑계대던 핵문제와 경수로 문제가 해결되어도 기대했던 남북관계의 해빙은 요원하기만 하다. 여전히 남북정착이 관계 담포사이엔 병행에서 온방으로 왔다 갔다하는 비일관성을 노정하면서 경색되고 있다.

탈냉전과 민족통일시대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남북관계와 남북정착을 지속적으로 억누르고 있다.

왜 빠른 재건만 따듯한 햇살은 오지 않는가?

문제의 근원은 김영삼정권이 남북정착을 거시적인 민족사의 구도하에 정립시킬 수 있는 능력에 아예 갖추고 있지 못한 데



강정구 사회과학대 사회학과교수·역사사회학

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몇가지 선택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장기적인 민족사의 과제와 전망의 구도속에서 남북정착, 핵문제, 경수로 문제, 수해지원 문제들을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각기 개별적인 수준에서만 다루다 보니 쌀문제와 같은 작은 문제에서 불거져 나온 조그만한 마찰이 장기적 민족사의 과제인 통일기반 조성이란 큰일을 거르치게 만드는 식으로 남북정착이 수행된다. 이렇다 보니 작은 반대 잡기위하여 큰 초가삼간 태워버리는 잘못을 범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김영삼정권 등장이후 남북정착은 큰집을 지을 엄두도 못내고 작은 일에 매달려다 큰집을 지을 터를 망치는 결과만 가져온 셈이다.

둘째, 민족사에 대한 장기비전과 철학이 없기 때문에 남북정착을 장기적이고 목적지향적인 전략적 수준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이고 수단지향적인 전술적 수준에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남북정착을 수단화한 전형적인 보기가 쌀지원문제였다. 6·27지자체 선거와 선거의 잠재력은 국면을 전환 및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쌀지원문제가 전격적으로 전략적인 수준에서 추진되었다. 따라서 인공기사건이나 사진촬영사건 등과 같은 아주 사소한 마찰이 일자 쌀지원문제를 더 큰 문제로, 더 나아가 통일기반 조성이란 핵심적인 문제를 아예 망

쳐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인공기사건에 대한 첫 잘못은 남북에 있다. 그렇지만 북측이 저지른 강압적 행위에 대해 북측은 곧바로 사과하여 보기 좋게 마무리 되었다. 사진촬영행위는 틀리는 이야기로는 남한 언론사가 이씨를 매수해 저질러진 일이라고들 한다. 언제나 남한의 흡수통일 위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북측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남한의 많은 반통일적인 언론이 ‘쌀주고 뽕땀 뺀다’라는 선전적인 선동으로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 할 때 왜 전략적인 수준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는지 안타깝다. 장기적인 비전에 입각한 정책이 아니라 정략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에 무책임한 범비식 여론에 우왕좌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본다.

셋째, 생존권에 허덕이는 북한은 남한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북한 체제붕괴의 일환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리함에도 국방비의 두자리 수 증가, 96년도 세계 제1위의 무기수입국 예정, 대북 위협적인 발언 등으로 북측이 안심하고 대남접촉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다. 강자와 약자사이의 명확한 결함은 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과연 남북의 정적이 얼마나 이 점을 고려하였는지 의심스럽다.

장기적인 해결책은 민족사적 전환기라는

통일시대를 맞아 민족사적 핵심과제인 통일기반 조성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다른 정책들을 이 전략적 목표에 전술적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서 남북정착을 펼친다면 군사비 축소, 흡수통일의 포기를 말만이 아닌 실천으로 옮기는 작업, 남한 기업의 대북경쟁에 대한 정부의 통제해제, 북일 및 북미수교의 지원, 평화협정 체결 등등의 정책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작년에 일어난 발발적인 조문과정에 대한 매듭이 어떤 형태로든 이뤄져야 한다. 북측은 이를 반인륜적 행위라고 보고 있다. 1백만명의 물난리를 겪고 있는 북녘동포에 물난리가 일자마자 무조건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하였더라면 아마도 조문과정에의 상처와 결림들이 제거될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나 아깝다. 이미 김영삼정권은 실기를 한 것 같다.

왜 수십만에 가까운 조선의 여성을 정신대의 희생물로 삼고, 잔악한 식민통치로 조선인의 삶을 송두리째 잊어간 원흉인 일본 히로히토의 죽음에는 남한총리가 문상을 해도 좋고 우리의 반쪽인 북측의 지도자에게는 조문말만 나와도 대대적 절친을 갖는 것으로 매도되어야 하는가? 왜 고베지진에는 2백만명의 긴급지원과 민간차원의 복구지원에 열을 올리고 하고 북녘동포의 참담한 수해에는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야 하는가? 소련에 지원한 수십억불에 대해서는 비밀리에 전격적으로 결정해도 되고 북한의 경수로에는 국민적 동의와 여론이 핏게로 들어가야 하나?

장기적 민족사의 구도하에 남북정착을 올바르게 자리매김한다면 이러한 극단적인 반민족적 모순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눈앞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에 매몰되지 말고 보이지는 않지만 멀리 펼쳐진 민족사의 재도를 꿰뚫어 보는 해안 속에서 남북정착을 파악하고 실천하는 민족사의 주체가 되어야겠다.

사설

학부제, 효율화 방안 강구

학부제 실시에 따른 논란이 많은 진통을 겪고 이제는 서서히 구체적 공간이 정리되고 있다. 학제개편은 오늘(9일) 열리는 교무위원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이번주내로 교육부에 접수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입상 명문과 형식은 어떻게 할지 비현실적인 시비로 학사운영의 수행에 더 큰 지장이 초래될 수는 없다.

그동안 학부제 실시에 따른 반발로 총장실점거 등 학교당국과 학생회가 극한적인 갈등상을 드러내기도 했었다. 이즈음 생각컨대 효율적인 논의구조의 마련도 없이 시련의 촉박함에 당면하여 일고일설의 아쉬움이 남을 따름이다.

그러나 학부제 실시 반대 학부제 자체의 부정적 측면만을 고집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여진다. 학부제 자체를 부정하기 보다는 학부제 실시를 위한 우리대학의 준비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학부제 실시는 수요자인 학생층의 교육체제에 전폭적 선택의 응징성이 높아짐으로 인해 다양한 학습을 접할 기회가 주어지고 대학운영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는 소위 ‘열린대학’의 실천적 전망의 구현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충분한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 학문간 체계와 영역을 무시하고 학과에서 학부로 명칭만 바뀐다면, 몇몇학과와 통합으로만 보이는 명목상-제도상 통합이라면 학부제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또한 학문의 유효성을 시장논리로 서면 설명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위축될 우려가 있는 비이전공과 기초학문분야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학교당국이 오랜시간에 걸쳐 연구해왔다면 대학원체제개편이나 학부제 실시기반제도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공개함으로써 학내주체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교수책임시간을 축소함으로써 강의 및 연구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취지 또한 살려야 할 것이다. 논문의 평가시 양적평가에서 질적평가기준으로 바꾸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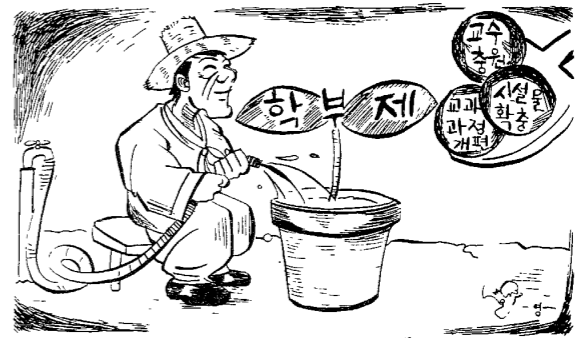
이제 학부제 실시에 따른 명문과 과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날 때다. 학내주체인 교수와 학생이 충분히 참여한 가운데 논의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면 지금부터 대학구성원에게 이의 필요성과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고 함께 공청회등의 논의를 통해 보완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회활동 또한 대학공동체확립과 더불어 자율적 활동을 위한 조직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되어야 할 과제다.

현재 모 일간지에 연재되고 있는 대학평가순위는 중국의 현실을 냉철하게 돌아보게 한다. 교수연구·재정·설비·기밀경관등에서 10위권에 진입하지 못했고 94년 과학논문인용색인집 논문재수 또는 전혀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 정확한 평가결과가 아니라도 그 결과물을 부인할 근거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동국은 발전과 개혁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동국발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

중국만성

이영일



‘대학밖’의 대학신문 창간리뷰

다양화·전문화로 독자층 호응 상업성 탈피할수 있나 우려도

‘대학 밖’의 입장과 관점에 서서 어떻게 점차 다양해져가는 대학가 풍속도와 대학문화의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요즘 대학생을 필수요소로 하는 매체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즈음하여 기질 수 밖에 없는 화두다.

기존의 ‘한국대학신문’과 ‘캠퍼스 라이프’에 이어 지난 8월의 ‘대학문화신문’, 그리고 ‘대학생경제신문’이 최근 창간했다.

이러한 매체들은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으로 배포되기

때문에 각대학이 기존 발행해왔던 대학신문·학보의 위상이 자칫 각 대학내의 학내매체로서의 한정적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대학인들의 긍정적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비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대학신문들이 아직도 대학당국의 불이해와 압력으로 자유롭지 못한 사안의 경우, 그 비판기능을 대신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도 일정정도 부응하고 있다. 그러나 학내의 안정적 재정적 확보에 반해 이

들 신문들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 측면을 감안할때 그들에게서 또한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생각된다. 상업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이런 어찌에 대해 김용호(신문방송학)교수는 “언론의 본래 기능을 생각할 때 다의성이란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필요한 정보에 대한 욕구 충족은 일단 시장에 맡기고 발간의 도가 상업적 성격을 띠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대학신문’에서 제호를 변경한 ‘한국대학신문’은 지역 1백90호에 통일하면서 각대학 보도해설, 학술·문화, 취업등 대학정보에 걸쳐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요즘 ‘대학’이라는 단어를 시리트로 각대학 지표 비교등 각 대학신문이 미처 감당하지 못한 아이템을 심도있게 살리고 있다. ‘캠퍼스 라이프’는 레포즈, 컴퓨터

젊은이의 문화, 연예등 생활문화정보지를 표방, 한편으로 명예기자제도 도입, 대학소식 전달에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신문의 광고를 주종 사업으로 해오던 예드젠에서 발행하는 ‘대학문화신문’은 격주간으로 현재 지령3호를 발행했다. 대학문화신문의 한 관계자는 “취업·진학과 관련한 진로와 수업·동아리 활동 등의 대학문화유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편집방향을 밝혔다.

취업전문지로서 인식되는 ‘링크루트’타임즈와 달리 이번엔 ‘한국경제신문’에서 창간한 ‘대학생 경제신문’은 경제전반에 관한 포괄적 안목을 길러줌을 제시하고 있다. 이 신문들의 편집관계는 단순한 ‘취업정보’보다 산업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초적 지식을 길러줄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런 특징도 취업시점에서 특히 지향 기업홍보 소식지로 전략하

지 않을가하는 우려를 낳기도 한다.

이런 다양한 대학정보신문들은 때론 광고중심의 ‘지대로’ 상업·소비지향적인 문화를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또한 흥미위주나 무분별한 대중문화화 전파하기도 하는 문제도 지적된다.

최순열(국어교육)교수는 “다양하고 개별화된 기대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한편으로 바람직한 대학문화 조성이라는 두마리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예기한다.

대학문화가 점차 다양해지고 대학생들의 이해와 관심 또한 다양하다. 그 수요를 충족하면서 올바른 대학문화의 장을 만들 수 있을지가 앞으로 과제임을 주지하며, 또한 진정 전문적인 대학신문으로서의 책임임을 절감하고 새로운 대학기의 열린 매체가 되기를 기대하며, 일단 예의 주시해볼 일이다.

(김소영 기자)

Large advertisement for HAITAI 50th anniversary. Features a man sitting with a laptop and various promotional messages. Text includes '50 HAITAI 창립50주년', '내 나이 28세 배낭여행 2.5회', '가장 좋아하는 도시, 모짜르트의 빈', '이제, 난 해태로 간다!', '관심 영역은 무한대!', '세계의 풍물과 접하며', '내 안에 세계를 키워왔다.', '그러나 이제, 진짜 세계를 만나야 할 때!'. Includes a table of branch off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HAITAI Management Committee.

동국 대약진 대명제 아래 전구성원 응집력 보여야

냉철한 시대인식·적극적 변화 필요

시대의 흐름

몇몇 전 모 재벌기업의 총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내와 자식을 빼고 모든걸 바꾸어야 살수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말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인지시켜주고 있다. 문제투성이의 발언이지만 총계 받아들인다면, 현대를 한마디로 규정짓고 있으며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하는가에 대한 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바로 지금은 변화와 개혁의 시대이며 이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도전의식과 적극적인 실천, 그리고 세계를 냉철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대학도 예외가 아니다. 적자생존의 논리에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고 앞으로 닥쳐올 교육시장개방등의 난제속에서 살아 남으려면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변화와 개혁도 냉철한 시대인식 속에서 나오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제 우리가 변화해야 한다. 정체의 극복이라는 냉철한 현실인식 속에서 도약이라는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변화해야 한다.



◇종단과 재단 그리고 학교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통해 동국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사진은 종립학교관리위원회 결과물 교계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

21세기와 개교 1백주년

내년이면 동국도 개교90주년이 된다. 그리고 21세기 개교 1백주년까지 향후 10여년간은 동국발전의 성배가 달린 절대절명의 시기이다. 동국의 미래가 바로 이 시기에 걸려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전 동국이 하나되는 응집력도 보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응집력을 만들어 내기 위한 각 구성원 서로의 노력과 합의도 있어야 한다. 대립과 반목, 불신의 풍토를 물리치고 전 동국이 하나된 힘으로 민족 대학, 동국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개교1백주년을 맞이할 시점에서 '동국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고쳐야 할 것과 더욱 다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물음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대장정의 첫걸음이다.

물적토대의 마련

자본주의 사회속에서 돈, 즉 경제력은 집단의 능력을 가늠하는 가장 대표적인 척도이다. 자본의 논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대학과 대학인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대학에 경쟁의 논리가 통용되고 그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동부림치는 것이 우리 대학의 현실이고 발전의 논리앞에 무력해져간 가는 학문공동체나 진리의 상아탑은 이제 그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기엔 너무나도 쇠약해졌다.

이 쇠약해 가는 대학의 본원적 의미를 되살리는 시도에서도 자본의 논리는 다시 적용된다. 교육 현실을 보다 현대적이고 과학적으로 개선해 경쟁력을 가지려면 막대한 자원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대부분의 사립대학 재정구조상 대부분은 전적으로 교육의 일차적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보면 대학 교육의 수혜자는 사회이고, 대학이 공식적인 교육제도리만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이 당연한 논리이다. 또 사립대학의 설립목적은 학교경영을 통한 영리추구에 있지않고 올바른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에 있다면 사립대학의 재단은 물적 토대 마련의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에서는 대학발전의 가장 중요한 열쇠인 물적토대 마련의 책임이 학생들에게 대부분 전가되어 있으며, 우리학교도 예외라고 할수는 없을 것이다.

동국발전의 관건이 교육여건의 개선과

학풍 쇄신이고 이를 위한 물적토대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때 현재의 재정구조를 개선하고 보다 나은 물적토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단의 노력이 필수이다. 보다 적극적인 재단의 재원확보 노력이 전 구성원의 동의를 확보한 학교발전 계획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동국발전은 그리 요원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여이사제도 도입 등을 통한 재단이사의 물적기여를 유도, 보다 폭넓은 수익사업의 추진등을 들 수있다. 대학교육 전반을 조사한 한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학교법인 동국학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자산만 당장 현금화되면, 그 이자수익은 얼마아마한 액수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잠재력을 활용한 수익사업의 전개는 동국발전의 필수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현 동국의 종립근거가 되었던 종단의 적극적인 물적 지원까지 따른다면 동국의 재정구조는 한층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와의 관계 재정립

재단은 학교의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동시에 학교발전의 일주체로서 학내 구성원들과 함께 할수 있어야 한다. 재단의 모

습이 언제나 그렇지 않았지만 다분히 학교의 경영기관으로서 사립학교법에 의해 규정지어진 직분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온것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으로 규정 지어진 자신의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도 사실이나 학사행정에 대한 재단의 간여는 동국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새롭게 정리되어야 할 과제이다. 우선 수직적 동국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새롭게 정리되어야 할 과제이다. 우선 수직적 관계에서 전권이 필요하다. 또한 총장을 비롯한 학교의 인사행정이 재단과 긴밀한 상용성 아래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학교 당국자들의 소신있는 행정수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적구조 개선

얼마전 끝난 조계종 중앙 총회에서는 재단 이사후보로 임기만료된 인사들이 대부분 재추천 되었다. 물론 재추천이 되기는 하였지만 이사회에서 진행되는 이사 선출방식으로 인해 현 이사들의 대폭적인 개편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재선되는 이사들은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진정한 동국발

기획시리즈

다시한번 동국발전을 생각한다

- I. 동국의 어제와 오늘
- II. 산적한 문제해결의 첫걸음
- III. 대약진의 과업과 전망

'기획시리즈 다시한번 동국발전을 생각한다'는 이번 세번째 '대약진의 과업과 전망'으로 마무리 됩니다. 송석구 총장 취임부터 앞으로 있을 재단 이사진의 개편까지를 한해는 그동안 기었던 동국발전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한번 정리 해볼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아픔들을 냉철히 돌아보고 보다 밝은 동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노력으로 본지에 기획한 이번 시리즈가 다소 미흡하나마 동국대약진의 시대흐름에 보탬이 될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다양하고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편집자

전의 길에 함께해야 할것이다. 재단의 인적구조는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극복될 문제가 아님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다. 구성원자들의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동국발전의 주체임을 각인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에서부터 재단의 변화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동국발전의 의지를 표출하며 실천해 나간다면 과거 재단의 안일한 태세로 인한 미흡한 모습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극복될수 있을 것이다.

종립학교 위상 강화

동국의 역사는 한국불교의 흥망성쇠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듯 동국과 한국불교의 관계는 밀접한 것이었고 이속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과 학교법인 동국학원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은 이제 더이상 동국발전과 무관하지 않다.

우선 종단의 생각이 변화해야 한다. 종립대학인 동국의 발전과 불교의 발전이 무관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재단의 물적 토대를 뒷받침 할수 있어야 한다. 이와함께 상시적인 종립학교 관리체계를 건설하고 재단과의 명확한 관계설정을 통해 구체적인 학교에 재단의 지위를 명문화 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재단의 제도적 개혁과 그 의미를 같이 한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이제 대약진의 뜻

앞서 몇가지로 동국발전의 선행요건이 되는 과제를 정리해 보았다. 우선 냉철한 시대인식으로 적극적인 변화의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며 21세기와 개교 1백주년을 앞두고 구성원들의 합의속에 응집력을 가진 선구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현재 동국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물적토대의 확보, 재단과 학교와의 관계, 재단의 인적구조 개선, 마지막으로 종단과의 관계 등을 생각해 보았다.

이속에서 도출된 결론은 바로 과거의 잘못이 있었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변화와 개혁의 의지로 21세기 동국대약진의 뜻을 펼치고 전구성원들의 합의 속에 동국의 응집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동국발전의 길로 뚫어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자! 이제 동국개혁의 절대절명의 과제 앞에 우리모두 담담하게 나서자. (취재부)

뜻깊은 만남

구데타를 권장한다?



윤정광

'성공한 구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우리나라 검찰의 해괴망측한 결정에 대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변호사들까지 '5·18관련자들의 기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카톨릭계에서도 기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런데 한가지 이상한 것은 우리나라 불교계가 끌려온 범어리처럼 '5·18'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는 점이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둑질 가운데 가장 큰 도둑질이 무엇이나 하면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구데타'라는 도둑질이다.

시시한 도둑이야 자질구래한 물건이 나 훔치고 돈이나 몇푼 훔치는 것으로 끝나지만 '구데타'라는 큰 도둑질집단은 아예 나라를 통째로 도둑질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구데타'라는 것을 일으켰던 우리들은 예외없이 나라를 통째로 도둑질했던 것을 상기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도둑질은 바로 '구데타'라는 나의 주장에 대해서 모두들 수긍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언필칭 '군사 구데타'를 '군인 무장 강도단'으로 부르려는 박병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몇천원짜리 웃한점 훔치다 붙잡히면 절도죄로 교도소살이를 시키고, 술집에 주막 한번 잘못 늘리면 특수범죄로 징역을 살리면서 도수백명의 사람을 죽이고, 수천명의 부상자를 만들고, 수천만 국민의 가슴에 분노와 좌절과 슬픔을 안겨주었던 저 '군인무장강도단'의 만행에 대해서 '성공한 구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면 이는 곧 군사 구데타를 권장하고 장려하는 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세상에, 이 지구상에 있는 어느 나라 정부가 군사구데타를 권장하고 장려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짓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기가 막힐 뿐이다.

나라에 충성하면 바보가 되고, 반란을 일으켜 성공하면 영웅이 된다는 해괴망측한 가르침을 정부가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으니 오히려 슬프다. 과연 이런 '정부'의 IQ는 과연 몇이나 되는가?

방송작가

무한·확·일·추·의
태평양 50주년 기념 행사
1945~1995

■ 컬춰렛(Culturette)이란?
리얼리티 활동가들 문화는 영혼의
근간이 되므로 영감화
창조하는 알기하는 리얼리티를
창조적으로 나타내다

제1회 컬춰렛 선발 태평양 「여대생 논문」 공모전

내 안에 상드가 숨어 있다

우리나라엔 왜 여자 대통령이 없을까?
우리나라엔 왜 여성 지도자가 적은까?
21세기가 다가옵니다.
여학생 여러분의 숨은 뜻을 펼쳐주세요.
보이지 않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기업-
태평양

조르주 심드 1804년 ~ 1876년
19세기 프랑스 화가로서 여인들과 풍경 등을
그리는 데 특화된 화가였으며 그의 그림은
많은 사랑을 받으며 현재도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상대적 여성은 화가인 조르주 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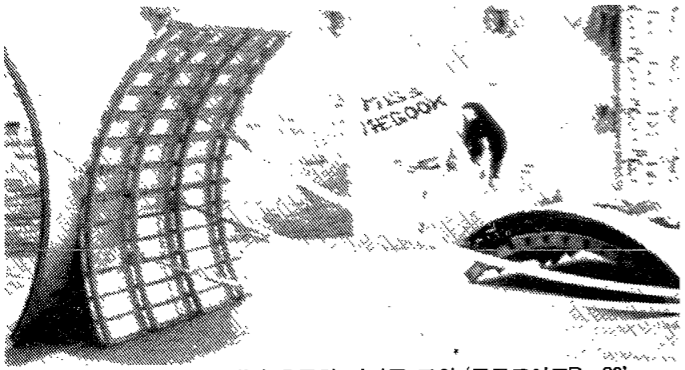
- 참가대상: 전국 각 대학 재학생인 여대생, 여대학원생
- 응모기간: '95. 11. 20 ~ 11. 30
- 응모주제: 21세기와 한국여성
- 응모방법:
 - 문량: A4 용지 25매내의 분량 (워드프로세서 이용 작성제출)
 - 2장내의 논문내용 요약 별첨
 - 논문 원본 1부 및 사본 2부
-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95년 11월 현재)
 - 자기소개서 1부 (여권용사진부착)
 - 연락가능한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 시상:
 - 최우수상 1명 - 상패 및 상금 500만원
 - 우수상 3명 - 상패 및 상금 200만원
 - 장려상 5명 - 상패 및 상금 100만원
- 입상자 발표: 1995년 12월 23일 개별통지
- 제출처: 우편번호 140-012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75-2 성원빌딩
태평양문화재단 사무국 (우편접수도 가능함, 마감일전 도착분에 한함)
- 기타사항:
 - 당사인사시 우대 (인턴사원)
 - 졸업때까지 매년 1회 이상의 컬춰렛 모임
 - 수상자 전원에게 2박3일 태평양 제주농장 견학
 - 출발자 전원 기념품 증정
 - 제출논문은 다른 강행물이나 논문지에 발표되지 않아야함
 - 응모된 논문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평양 문화재단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전화 (02)739-2388-9)

◇ 광주비엔날레 조직위원 오경환 교수를 만나

광주비엔날레와 안티비엔날레

◇ 광주동일미술제를 다녀와서

“광주의 아픔을 달래주는 무언가가 될 것이다”



◇ '국제현대미술전'에 출품한 마이클 주의 '몽골로이드B-29'

국제적인 미술 전시회가 특정지역에서 2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문화올림픽'인 비엔날레가 지난 9월 20일부터 광주에서 시작됐다. 세계 60여 나라, 6백여명의 미술인이 참여한 광주비엔날레의 조직위원 겸 집행위원을 맡고 있는 본교 오경환(미술학)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고 있는가. = 시간을 조금만 내고 보려 한다면, '국제현대미술전'과 '한국현대미술전'이 열리는 본전시와 특별전 행사로 열리고 있는 '인포아트전' '5·18전', 피카소와 사할등 대가의 작품들이 있는 '중인으로서의 미술전'은 꼭 봐야한다.

름 서구중심주의를 과감히 탈피했다. 짧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제3세계 예술도 포함했다. 작품들의 특징이라면 설치와 영상작품이 90%를 넘게 차지한다는 것이다. 현대미술계의 유행이랄수도 있지만, 짧은 작가들이 가진 실험성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올바른 광주정신 계승위한 참된 미술제

5·18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 열을 높여야 하는 시점에서 비엔날레가 광주에서 유치되었는지, 이분법적 논리를 떠나 당당한 현실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가 깊이 고민할만한 화두가 아닌가?

근거를 담아야 할 수 있어야 함에도 광주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 둘째 결국 문화상품화를 위한 것이 비엔날레의 당위로 광주정신을 함부로 운운해버리고, 값싸게 팔리기 위해 15년을 싸우고 견뎌지는 두가지의 구실이다.

달 하나 전 경이 환경도 산업이다



유럽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국민 생활 전반에 이미 깊숙이 자리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 있어서도 환경 경영이라는 보편적인 경영이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용 부담의 증가로만 생각하지 않고,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개발·생산·관리하는 환경경영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화가 하나도 예외 없이 자연으로부터 산출되어진 것임을 알아야 한다.

히포크라테스와 허준 침구요법

“모든 질환에서 치료 및 진단·예방에까지도 응용가능한 치료법”

옛부터 전해오는 말 중에 일침이 구삼약(一針二灸三藥)이란 말이 있다. 이것은 첫째가 침이요 둘째가 뜸이요 셋째가 약이라고 할 만큼 침의 치료효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말한다.

아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구법(灸法)은 약50만년전 중국에서 인류가 불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현재도 아프리카 가장 쉽게 사용되는 것은 운열(溫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마치 전철역과 역을 연결하는 전철노선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경락(經絡)이란 한의학에만 있는 독특한 개념으로 기혈(氣血)이 운행하는 통로이자 생체내부와 외부를 연결해주는 연락선으로 병리적으로는 자각의 전도통로인 것이다.

를 강화하여 생체의 기능실조를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도 침요법에는 진통작용과 진정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촉진시키는 작용도 있다고 한다.

제 또는 흥분작용이 있어서 각종 통증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혈액을 촉진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할 수 있고 건강상태를 전체적으로 증진시키며 각종 내분비선의 기능을 조정한다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작용이다.

차수련 경상대 경영학과 교수

Laser를 경혈부위에 조사하는 Laser 침 요법등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이침요법은 동통성 질환의 치료에 많이 응용되고 있다.

고 나서 이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꼭꼭 눌러주기를 5분씩 하고 그 다음 누워서 왼발로 오른발의 용천혈을 문지르고 반대로 오른발로 왼발의 용천혈을 문지르는데 각각 5분씩 10분간 실시한다.

장준혁 (한의학 임상연구원)

30년 중앙일보 창간 30주년 기념. 우리신문이 한글날을 맞아 전면 가로쓰기로 바꾼 뜻은 온 국민이 더욱 읽기 쉽게 함이요, 일제문화의 잔재를 없애고 한글사랑의 정신을 뿌리내리고자 함이라. 중앙일보 창간 30주년 기념. 10월 9일부터 전면가로쓰기 단행! 깊고 다양한 정보를 더욱 빠르고 쉽게 보십시오.

1학기 부업 알선 84.6%

사무보조원 등이 높은 비중

본교 1학기 부업알선율이 84.6%로 집계됐다. 취업과(과장=황우열)에 따르면 부업알선 4천5백86명중(총 학생 수 9천7백11명) 84.6%인 3천8백80명이 알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내·외의 비율을 살펴보면 학내 1백43명, 학외 3천7백37명으로 학외의 비중이 높았으며 직종별로는 사무보조원, 홍보원, 안내원, 조사원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모시고 '대승보살의 길'이라는 주제로 초청법회를 연다. 덕암큰스님은 전 대교종 제13대 종정을 지냈고 저서로는 '불교신앙의 바른길'과 '대승보살도' 등이 있다.

전국대학야구 추계 대회 본교, 인하대와 첫 경기

본교야구부가 오는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서울동대문야구장에서 열리는 95년도 전국대학야구 추계대회에 출전한다. 토너먼트식으로 열리는 이번 경기에 본교 야구부는 오는 11일 오후 2시에 인하대와 첫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덕암 큰스님 법회 '대승보살의 길'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은 오는 10월 오후 4시에 덕암큰스님을

대의원 정기 총회 학생회비 인상 등 논의

대의원 정기총회가 오는 11월 4시 동국관(L310)에서 총학생회처 부분개정안, 학생회비 인상 등을 안건으로 열린다. '학생대의원회 활성화', '대의원 권위 복원'의 기초를 가진 이번 총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준, 2학기 예산안 배분 승인 등을 예정하고 있다. 총대의원회 의장 박대용(불교4)은 "상반기 통산감사와 1학기 예산감사 소위원회에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대부분의 임원들은 자신들의 정각금까지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은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자 △졸업준비위원장은 3, 4학년 대의원에서 선출한 자로 한다 등 총 9개 장의 내용이 삽입, 추가, 삭제 변경되었다. 학생회비 인상안은 현행 8천원인 학생회비를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대의원회 의장 박대용(불교4)은 "상반기 통산감사와 1학기 예산감사 소위원회에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대부분의 임원들은 자신들의 정각금까지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단대 학술제 개막... 16일부터

강연회 민속놀이 마당극 전시회 등 풍성

불대·경상대 학부제 논란 속 행사 축소·취소

9월말로 예정된 단과대학학술제가 '학부제' 논란 등 학내외의 상황으로 인해 10월중순 이후로 연기됐다. 각단과대 상황은 다음과 같다.

문과대 5·18투쟁과 학부제 논란에 관해 예년보다 일정이 다소 늦어진 문과대 학술제 '명진제'가 17일부터 19일까지로 예정됐다.

행사내용은 강연회 중심의 학술 행사와 축구중심의 체육행사를 두 축으로 세부계획이 논의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무리한 참가를 요구하기 보다 내용상의 강화를 중점을 두고 있다.

문과대학총회(회장=좌수일·국문4)는 지난달 자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민중문화에 관한 강연회와 민중문화작가를 초대, '작가와와의 대화'를 준비중이다.

19일로 예정된 폐막제에서는 영문과 노래패의 노래공연과 휘몰이, 강강술래가 펼쳐질 계획이다.

생명자연과학대 생명자연과학대 학생회(회장=박동희·생명자연과학4)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풍년제'를 실시한다.

이 기간동안에는 각종 체육행사와 마당극, 민속놀이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마지막날 행사는 일산소재 생명자연과학대 실습농장에서 이뤄진다.

사범대학총회(회장=조현중·국교4)는 오는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를 95학림 축전 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4일부터 과대학 체육대회를 진행중이다.

사범대 발전대안에 대해 고민하고 공유하는 자발 마련위한 취지로 열리게 될 이번 축제에서는 영화상영, 풍물패 공연, 전시회,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사범대 측은 사범대학이 걸어왔던 길을 총화하고 과별 행사에서 단계를 거쳐서 가을축전의 의미를 밝혔다.

예술대 예술대학총회(회장=조진호·연영4)는 오는 10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미술학과와 연극영화학과를 중심으로 예술제를 계획중이다.

학과차원에서 치뤄질 이번 행사에서 미술학과는 전시회를, 연극영화학과에서는 졸업연극과 영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과대의 공과대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학술제가 치

뤘다.

이과대학총회(회장=박동민·물리4)는 4일 명진관 앞에서 김늘이와 개회식을 가진 후 '브레이크 러너' 영화상영을 했고 5일엔 민중광장에서 체육대회와 풍물패와 '노래패'의 집체극을 공연했다.

6일엔 녹두거리문화제 참여로 학술제 폐막식을 장식했다.

이과대 측은 대학문화의 주인과 함께하기 위해 녹두거리문화제에 많은 관심을 쏟았다고 밝혔다.

공과대학총회(회장=김성원·산공4)는 4일 '브레이크 러너' 개막영화제를 증강실에서 개최했으며 5일엔 학술분야에서 TOEIC시험을 치렀다. 마지막 6일에는 과대학 체육대회와 녹두거리문화제를 실시했다.

학생회 측은 집행부 인원 부족, 자원봉사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작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긴 했지만 원용인의 축제로서 자리매김의 취지로 나가려고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대학총회(회장=김인성·불교4)는 지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를 학술제기간으로 정하였으나 준비미흡과 학술제기간과 선행과과 불교학과의 답사일정의 중복 등으로 인해 이번 2학기에는 학술제를 열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상대학총회(회장=서동욱·무역4)는 지난 4일 있었던 비상 학생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결렬되어 학생회사업에 차질을 빚는 바람에 학술제가 축소되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지난 3일 한총련대표로 북한을 방문했던 정민주·이해정 양이 판문점을 통해 남한으로 귀환 즉시 구속돼자 대학생 8백여명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취재부)

사범대 학생회(회장=조현중·국교4)

는 오는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를 95학림 축전 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4일부터 과대학 체육대회를 진행중이다.

예술대 예술대학총회(회장=조진호·연영4)

는 오는 10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미술학과와 연극영화학과를 중심으로 예술제를 계획중이다.

이과대 이과대학총회(회장=박동민·물리4)

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풍년제'를 실시한다.

공과대 공과대학총회(회장=김성원·산공4)

는 4일 '브레이크 러너' 개막영화제를 증강실에서 개최했으며 5일엔 학술분야에서 TOEIC시험을 치렀다.

경상대 경상대학총회(회장=서동욱·무역4)

는 지난 4일 있었던 비상 학생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결렬되어 학생회사업에 차질을 빚는 바람에 학술제가 축소되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대 불교대학총회(회장=김인성·불교4)

는 지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를 학술제기간으로 정하였으나 준비미흡과 학술제기간과 선행과과 불교학과의 답사일정의 중복 등으로 인해 이번 2학기에는 학술제를 열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총학생회 총학생회(회장=박대용·불교4)

는 오는 11월 4시 동국관(L310)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김동희·경계4)

는 지난 9월 1일부터 6일까지 졸업준비위원회를 개최했다.

'95백상예술제전 내일부터 예술·체육 어우러짐의 한마당

'95백상예술제전'이 '동국'이 달린 다리는 큰 모토아래 총학생회(회장=안진우·국교4)주최로 내일(10일)부터 12일까지 교내 곳곳에서 다채롭게 치뤄진다.

제단행사를 통한 민족화해전선의 토대 마련과 5·18학살자 기소관철 투쟁으로 학우들과 함께 한해를 총화하자'는 기치아래 △95년 총화, 내년 투쟁을 준비하는 직접 △침체된 동아체육활동의 활성화 △학우들의 학문과 예술에 대한 욕구 반영의 장 등의 목표를 가진 이번 예술제전은 크게 개막제, 상설마당, 폐막제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개막제에서는 정족수 세우기가 있을 예정으로 제일병원 일방통행도 추진한다. 또 폐막식에서는 조국과 청춘의 공연도 있을 예정이다.

총학생회 사무국장 반준(산림자원 4)은 "백상예술제전 이번의 의미가 많이 퇴색했다"며 "시기와 맞물려 총학생회의 집행력이 저하돼 치루기식으로 진행돼 온 게 사실"이라고 말하고 "말 그대로 예술과 체육의 어우러짐에 학우들의 집단성이 발휘되는 그런 백상예술제전이 될 것"이라 밝혔다.

한편 행사기간동안 김영삼 정권의 실정 등을 담은 '김영삼 백서' 사진전이 있을 예정이다.

학과소식

일어일문과
오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추상제 기간으로 정하고 일어연극, 집체극, 체육대회, 편집부의 학내소식지 발간, 영화소모임의 세계라키 발간 등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중이다.

정보관리학과
오는 20, 21일 양일간 정보관리학과 10주년 행사를 갖는다. 신설 10주년을 자축하고 졸업생과 재학생, 교수간의 연계를 위해 치루어질 이번 행사에는 북한산 등반대회와 정보인의 밤(정보인 한마당)이 있을 예정이다.

학적부 전산화 작업완료 서류전형서 깔끔한 인상 기대

졸업생 학적부 전산화 작업이 완료됐다. 학적부의 한 관계자는 "이전까지 졸업생들이 기업체 서류전형에 학적부 복사본을 사용했으나 전산화로 인해 원본을 사용함으로써 복사본보다는 깔끔한 인상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산화된 학적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발급되었다.

졸준위 '총열매' 발간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김동희·경계4)는 사회진출에 관한 자료집

희전문대

플러!

○...동국관에서는 오랜만에 환호성이 울려퍼졌다. 동국관 앞 통일광장이 언제부터가 주차장으로 변모, 이렇듯 못한 모단과 학생회가 통일광장 살리기에 앞장선 것.

오랜만에 환호성이 울려퍼졌다. 동국관 앞 통일광장이 언제부터가 주차장으로 변모, 이렇듯 못한 모단과 학생회가 통일광장 살리기에 앞장선 것.

이제 통일광장 살리기에 적극 앞장섰다고 자칭하는 한 학우 말 "플러~"

사상가(?)

○...자고로 천고마비의 계절이건만 책은 높고 비도 오다 오. 케이플TV만살씨는 가을이 라고.

사늘한(?) 가을 덕택에 죄없는 마음의 양식보이고 책방만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다간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죽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에 희전문대자 말 "여러분! 독서에 무더위 위대한 사상가(死想家)가 되고 싶진 않겠소?"

위원+위원=진실

○...국민을 위해 바로 서야 될 곳이 외부의 흔들림에 이겨 내지 못하는 한대.

알아본쪽 검찰측에서 5·18위중고발사건을 수사한다고 보도한 후 민자당측에선 수사에 반대한다고 해 마파람에 계는 감추듯 검찰측은 수사를 양켰다고 하여 지켜보는 국민들은 분노를 사하지 못한다는데.

이에 본 희전문대자 한마디 "부정의 부정이 강한 공정을 나타내듯 5·18위중고발사건을 위중한다던 진실인가?)"

토속(?)대통령

○...PK출신이 가장 좋아하는 속담? 뱀(P)따라 국(K)이에 진출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PK출신들이 요직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다는데.

더욱이, 실력으로 뽑았다는 총무처장관의 말만으로는 현재 인사추이가 해명될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고.

세계화를 추진하는 대통령도 한가지 토속적인 것은 있는 듯. "우리 지역 것은 좋은 것이어..."

동국이 달린다

'95 백상예술제전

그 찬란한 여명은 시작되고

10일(개막제)
축구·농구·축구 8강전을 시작으로 제2회 열전 달리는 자주중악이 오후 1시 동악교정 곳곳에서 이어지며 3시부터 불상앞에서는 개막제 행사가 그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우리들의 열정! 패기! 그 뜨거움으로
11일(상설마당)
메이저 줄넘기, 배드민턴 등 상설체육 행사와 축구·농구·축구의 4강전, 씨름·국궁 등 교유의 민속놀이들이 동악 곳곳에서 펼쳐지며 오후 4시부터는 중앙광장에서 문화행사인 '정대훈과 함께 하는 열린 이야기'가 열립니다.

동국이 달린다
12일(폐막제)
'95백상예술제전의 꽃인 마라톤 대회가 명동까지 왕복코스에서 펼쳐집니다. 또 축구·농구·축구의 결승전 및 시상식과 폐막식 행사로 '95백상예술제전의 화려한 대단원이 막을 내립니다.

시대개척 민족지성 통일로 가는 애국 공동체

민족동국 제27대 총학생회

정각원장·학생처장

총선거 일정 공고

선거단위	단과대 의장	단과대 학생회장	총대의원회 의장	총학생회 회장
일정	10월9일(월)	10월9일(월)	10월9일(월)	10월16일(월)
선거 공고	10월11일~12일	10월16일~18일	10월16일~18일	10월24일~25일
후보자 미팅 및 사전 촬영	10월13일(금)	10월19일(목)	10월19일(목)	10월26일(목)
후보자 공보	10월17일(화)	10월23일(월)	10월23일(월)	10월31일(화)
1차 유세			11월2일(목)	11월3일(중도)
2차 유세			15:00	11월7일(야간)
3차 유세			L301	11월9일(만해)
공청회				11월10일(중앙광)
4차 유세				11월13일(중도)
투표	10월18~20일(22일~25일)	10월31일~11월3일	11월2일~3일	11월14일~16일
개표				11월16일 14:00
당선 공고				11월16일 18:00
당선환정공고				11월17일 18:00

1. 총학생회장 선거는 총학생회장 선거일정에 준합니다.
2. 총대의원회 의장 선거: 유세후 투표, 11월3일(금) 10:00~18:00 중앙도서관 앞
3. 총학생회장 선거투표: 11월14일(화) 13:00~18:00, 14:30~22:30(야간강좌) 15일(수) 10:00~18:00, 14:30~22:30(야간강좌) 16일(목) 10:00~13:00(전지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5회 추계 명찰순례

滿山紅葉으로 꾸민 대자연에서 한방중 부석사 풍경소리는 구름따라 울음소리야 어우러져 우리의 기쁨을 두드린다

산사의 가을 정취에 흠뻑 젖어 볼 수 있는 추계명찰순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동국인의 참여바랍니다.

1. 개최일자: '95.10.27(금)~28(토)
2. 장소: 경상북도 소백산 부석사
3. 참가대상: 전 동국인(선착순 90명)
4. 참가비: 오원(₩5,000)
5. 접수기간: '95.10.9(월)~10.20(금)
6. 접수처: 학생과(본관1층)

※ 교육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내 대학 교학과 또는 학교 게시판의 교육실습 안내문을 참고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범대학 교학과(☎ 260-3380)로 문의바랍니다.

정각원장·학생처장

96학년도 교육실습 신청서·동의서 접수

사범대학생 및 교과과정 이수자의 '96학년도 교육실습'에 따른 교육실습 신청서·동의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다 음

- 대상 '96.8월 또는 '97.2월 졸업예정인 사범대학생 및 교과과정 이수자.
- 교육실습기간 '96.4.1(월)~4.27(토)-4주간.
- 교육실습 신청서·동의서 접수기간 '95.10.9(월)~10.31(화)일까지.
- 제출서류 교육실습 신청서·동의서(소정양식)
- 교부 및 접수처 사범대학 교학과
- 접수절차 사범대학 교학과에 비치된 서류를 교부받은후, 각자 희망하는 학교의 교육실습 동의를 얻어서 기한내에 사범대학 교학과로 접수.

※ 교육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내 대학 교학과 또는 학교 게시판의 교육실습 안내문을 참고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범대학 교학과(☎ 260-3380)로 문의바랍니다.

사범대학장

TV비평

—국악의 대중화 시도한 '시미 기쁜 물'
 국악장단에 대중가요로 대중화 시도
 시간대 조절로 많은 사람 볼수 있어야



◇'시미 기쁜 물'에 출연한 오정해, 김명곤.

한때 영화 '서편제'가 수많은 텔레비전 시청자를 끌어들여 최고 흥행 1위에 그 이름을 올려놓은 적이 있었다. 흔히 담긴 소리를 위해 듣기 힘든 소리꾼들의 비애, 가장 한국적인 소재로 한국인들을 한바탕 울게 한 것이었다. 올해 들어 가장 인기를 누리는 댄스그룹들이 저마다의 기량을 맘껏 펼치는 무대들이 저녁시간대의 TV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그 열기가 식기에 충분한 밤 12시에 특이하고 멋진 무대가 일주일에 한번씩 열리고 있다. 매주 화요일 밤에 방송되기 시작한 '시미 기쁜 물'이 그것이다. 이미 '음비어천가'의 처음에서 따온 제목이 시사하듯 우리의 것, 그 중에서도 국악을 주창하는 프로그램이다. 라디오나 TV에서 국악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시미 기쁜 물'은 대중음악과 국악의 접목시도라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호응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출연했던 사람들은 '국악의 대중화'라는 명목에 맞게 인간문화재 김동진씨, 오정해, 김명곤 등의 국악인, 신형원이 나와 '서편제'에서 평양까지라는 민중가요를 불렀고, 주병선, 정수라 등의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들이 함께 나왔다. 또 TV로 방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외제작을 원칙으로 각 대학 노년극장과 같은 여러 사람이

영학의 패러독스

—여성주제와 영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남성시각으로만 보면 비객관적일수 있어
 "세상을 보는 관점에 따라 영화 평가 다를 것"



정재형

(예술대 연영과 교수·영화평론가)

영화를 해석하는 관객의 주제성은 현실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주제적인 파악으로 연결된다. 영화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흔히들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 의미는 현실을 구성하는 입장을 얼마나 주제적으로 인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실을 지배하는 가부장적인 제도와 여성을 소외시키고 타자로 인식해온 남성관념에 대해 여성인정에서 주제적으로 영화를 인식한다는 일은 남성인정에서만 보면 확실히 도전적이다. 오병철 감독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남성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어온 여성에 대한 그간의 견해를 뒤엎고, 타자인 여성을 이 사회와 제도속에서 주제로 부각시키기 위한 도발적인 발언으로 여겨진다. 세 여성의 독립적인 삶을 남자와의 관계에서 사슬하는 이 영화는 멜로 드라마 이전에 여성의 삶과 죽음을 그려낸 자서전적 영화이며, 영화이기 이전에 여성에 대한 보고서이기도 하다. 남성들은 이 영화가 취한 남성에 대한 일방적인(?) 편견과 분노에 대해 불만을 가질 것이

분명하다. 이성적인 남녀공동체 사회에서 이런 식의 남성혐오나 결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과연 적당할 것인가를 회의하게도 만들 것이나, 하지만 이 영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견해차이는 관객이 세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이 영화는 영화이전에 세상을 우선 여성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관객에게만 특별히 개방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여성주제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셈인데, 이 영화를 통해 여성주의란 무엇인가를 진절하 설명하고자하는 관객들에겐 옹졸하고 편협한 영화로 보여지며 소위 '객관성'을 의심받일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치관과 질서가 여성시각보다는 남성시각이 지배한다는 사실은 이 영화의 객관성을 따지는 많은 주류 남성관객들에게 각성을 요구하는 부분임을 알아야 한다. 한국영화속에서 이러한 여성주제를 문제화한 영화가 나타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단지 그때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같은 여성소재 영화에서도 여성주제의 시각보다는 남성의 무지함을 단지 계도하고 여성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차원에 머

◇시민·학생 한마당 '녹두거리 문화제'를 보고
 행사 운영미흡등 문제점 보여
 건전한 지역문화 확산 계기 돼야



"땀 땀 땀 땀 땀"의 흥겨운 풍물소리가 녹두거리 문화제 시작의 종소리를 울렸다. 2백여명에 가까운 시민·학생들이 모여 이번 행사에 잔뜩 기대를 한 듯 다음 공연은 무엇일까 궁금해하는 표정들이다. 드디어 첫 사회를 맡은 이과대 학생회장 박동민(물리4)이 개회사를 의치자 모든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성에 녹두거리가 떠나갈 듯하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열리는 '녹두거리 문화제'는 집행부 요원의 부족, 자원봉사자 단원들의 운영 미흡등으로 여러 문제점이 있었지만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마당인만큼 열심히 준비했다면서 잘 지켜봐 달라"는 사회자의 말이 인상에 남는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시민과 함께 하는 자리에 중점을 두어 시민이 참여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려 했고, 특히 주민·학생 가요제가 이 행사

의 의미를 가장 잘 살려낸 자리였다. 학생들이 자주 들리는 단골가게의 주인들이 나오고, 학생들이 자기 단골 가게의 이름을 부르며 응원하는 모습도 보였다. 대학인들이 가진 대학문화를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자본주의적 상업문화와는 다른 면모를 가져야 할 대학문화가 학교내 고립된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야말로 대학인들이 추구해야 할 모습이 아닐까? 대학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 M·T 체육대회들로 전락해버린 현실 속에서 지역문화의 건전함을 확산시키는 이란 조그만 행사야말로 지역 내 대학의 역할이 될 것이다. 탈춤공연을 보면서 "일주"라 흥얼거리는 유치원생들 보며 '녹두거리 문화제'와 같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사가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문화의 하나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한상용 기자)

메아리

나는 순수한가

▲조금있으면 96년을 이끌어갈 각 단대학생회, 자치기구 선거가 시작된다. 아직 눈에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벌써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선거후보자들은 당연히 당선이 되었을때 1년을 이끌어 나가면서 해야 할 사업들을 공약으로 내세운다. 그것은 학우들을 대표하는 한 것으로써의 약속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고 사회가 아닌 학생의 신분으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출마를 선언한 것일은 분명하다. 그 순수한 열정의 표현이 공약인 것이다. ▲지난 5일 언론협의회에서는 각 학생기구를 대상으로 학우들에 관한 각 기구의 임장과 1년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각 기구의 공약에 대한 임장들을 학우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했다. 하지만 13개 기구장중 6개 기구장만이

참석했을 뿐 7개 기구장들은 불참했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지만 공청회의 성격상 회피할 기구장도 있을 것이다. ▲작년 이맘때쯤 마이크를 목청높여 공약을 외쳤던 사람들의 입에서 2학기는 택시제전만 하면 거의 사업이 끝난다는 이야기가 공청회에서 나오는 것은 지켜내지 못한 사업들에 대한 책임회피와, 대대로 그려왔기에 우리들도 그러하다는 것은



서승현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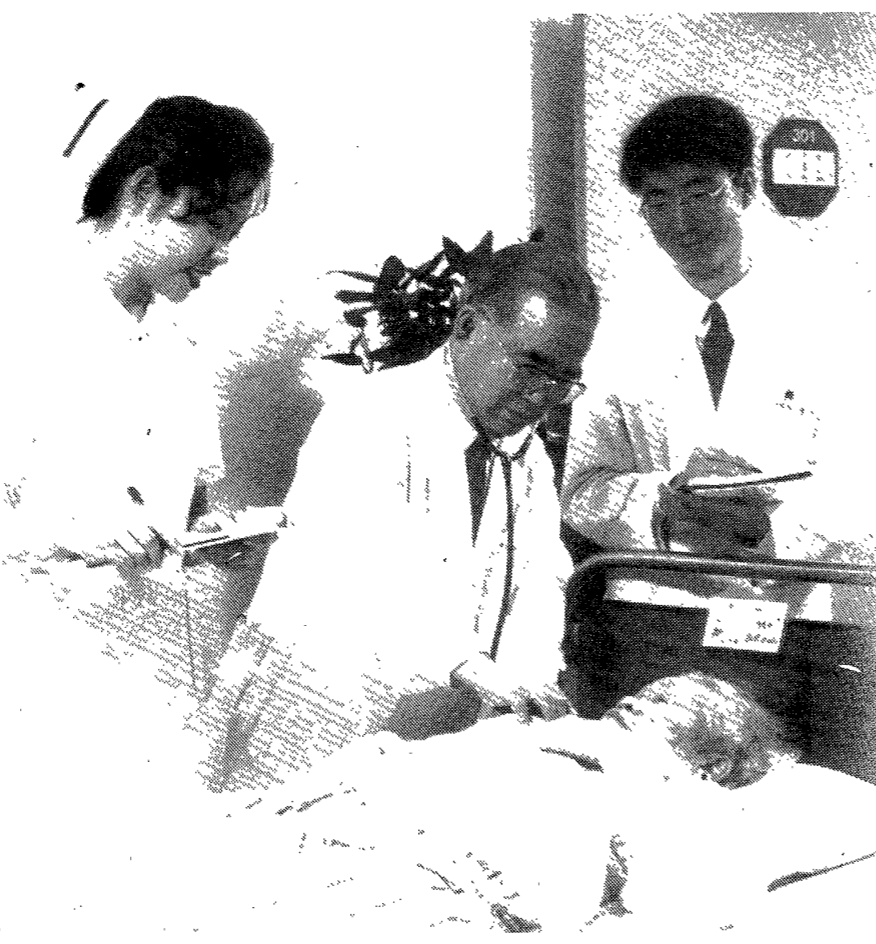


성원에 감사드리며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병원장 이종형 (한의학박사·교수)

본원은 동국대학교 의료원 산하 한방병원으로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인술자비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89년 10월17일 개원하여 개원 6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한방병원에서 진료 받으면서 이끌어주시는 교직원, 동문 및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전문의료진의 확보 및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환자중심의 병원, 그리고 새로운 사고와 의료체제로 21세기 UR에 대비하며 또한 문명에 건설중인 한의과대학 부속 동국분당한방병원과의 연계를 도모하여 세계 제일의 한방병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저희 교직원은 더욱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직원, 동문 및 고객 여러분의 덕내에 행복지 향상을 위하여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격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진료과목

구분	진료과목	전문진료분야
제1내과 (안·이비인후과)	이종형	간·폐·계질환 -간,담,폐,기관지 비계질환 -위,소장,대장,췌장,중풍,뇌,교,인,후질환
제2내과 (부인과·소아과)	김정현	삼·신계질환-심장혈관 고혈압,저혈압,신장,전립선,방광,요도,당뇨병 부인병 (월경이상,대하,중풍,임신중산후증) 소아질환(성장및발육부진,호흡기대사)허약아
제3내과 (신경정신과)	구병수	뇌혈관장애,신경마비 신경·정신계질환
침구과	김갑성	통증질환(머리,어깨,무릎,허리,팔,다리,신경통,비만증,체질치료)
한방요법과	이명중	척추질환,골반디스크,신경통,각종마비

특성서비스

- 척추관절물리닉
- 중풍물리닉
- 침구물리닉
- 산후물리닉
- 미용 (비만·여드름)
- 금주·금연물리닉
- 허약아클리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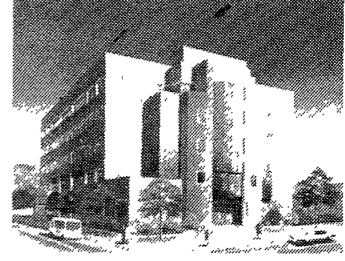
할인혜택

- 35%:교직원
- 20%:교직원가족, 재학생
- 10%:돌입생, 불교신자

동국한방병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4동 837-13
 전화:(대표)536-5599
 (응급)536-4660

분당한방병원 조감도



(지상5층 지하2층/96.32개원예정)